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관한 지방 도시 소비자의 입주의사와 태도

The Local City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Move to a Group Home for Elderly Based on Community Friendly Concept

최현정*

Choi, Hyun-Jung

최병숙**

Choi, Byung-Sook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a group home for the middle class elderly, which provide local communities with the small residential spaces where seniors can feel at home. Questionnaire method was performed, and 193 data were gathered in Jeonju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respondents have a size of house (66.2-99.1 m²), elderly disease or dementia, and their annuity or their spouse annuity, and when they are much old, their intentions to move into a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the aged is detected. The respondents and their spouse with the pension of more than 2,000,000 (KRW)/month have an intention to move to this group home. Also, they and their spouse with annuity have positive attitude to it, and these groups with the pension of more than 2,000,000 (KRW)/month have low negative attitude to it. So, house size, health condition, and annuity are variables to determine to move into it.

Keywords : Elderly Group Home, Group Home with Concept of Community Friendly for the Aged,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Move

주요어 : 노인공동주거,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주거, 소비자 입주의사와 태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2010년 인구통계조사 결과에서 보면 2000년대 접어들어 자녀 출산 감소, 고령화, 독신생활 등으로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의 가족형태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 문제에 있어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 노인들은 자녀 지향적이고 가족 지향적이지만 자녀 층의 부양 의식 약화 사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갈수록 노인부양문제는 가족위기를 불러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Kim & Jung, 2002). 고령화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의 약화를 가져오므로, 노인은 고령화할수록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노인에게 이러한 생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보살피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는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다(Hong & Jee, 2006). 입주금과 월 이용료를 고가로 지불해야 하는 유료 노인주거시설과 기초수급자를 위한 무료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양극화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현 가족구조의 변화 추이를 볼 때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은 단독가구로 존재하면서 점차 고령화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노인주거시설의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홀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나, 아픈 경우 노인주거시설이 아닌 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들의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는 해체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Kim & Jung, 2002). 따라서 대다수 중산층 노인은 고령화되었을 때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도움 없이 보살핌을 받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이나 집을 중심으로 보호의 손길 속에서 모여 살면서 외로움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노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산층 노인을 위하여 대규모 노인주거시설이 아니라, 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던 집을 중심으로 가까운 노인들이 모여 노

*정회원(주저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정회원(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 인간생활 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논문은 최현정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1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후를 함께 보내는 소규모형 노인공동주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의 노인주거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 대한 실태 파악이 주된 내용이므로(Kim & An, 2008; An, 2009), 본 연구에서는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소비자 시각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대규모 노인주거시설인 기존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에서 벗어난 개념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하여 전주시를 중심으로 40대 이상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노후주거의 한 대안으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지방도시 소비자의 입주의사를 파악하고, 입주의사와 관계된 변인을 파악한다. 둘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지방도시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태도와 관계된 변인을 파악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도시인 전주시 소비자들은 새로운 개념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개념

오늘날 사회에서 제시된 노인 주거관련 유형은 흔히 실버타운, 요양시설 및 양로원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란 노인이 살아온 친숙한 환경의 집근처에서 여생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노인이 반의존 상태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24시간 상주하는 전문가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병원과 연결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적은 수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들은 이전에 살던 생활권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대규모시설과 재가(在家)의 중간적인 성격의 소규모 노인입소시설의 개념이다. 이는 24시간의 보호와 감독을 요하는 10인 이내의 노인들에게 양질의 치료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계획된 가정적인 소규모의 주거시설 및 요양시설의 대안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는 시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가정과 시설 사이 중간적 개념에 있는 한 대안으로서, 중증 치매의 전(前) 단계까지 노인의 거처로서 돌봄(care)의 기능이 부가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노인주거에서 소규모형과 지역거주의 거택(aging in

place)이 그 핵심적 개념이 되고 있다. 노인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오래 살수록 애착이 강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Sixsmith, 1990; Sixsmith & Sixsmith, 1991; Fogel, 1992; Mustchler, 1992). Oh (2005)는 움직임을 제한 받는 노인일수록 교통, 상점, 문화시설 등의 접근성이 용이한 기존 도심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노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한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 내에서 그대로 살게 하여야 한다는 거택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Kim(2008)도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탈 시설화 개념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을 제시하였다. An(2006)도 노인그룹홈은 가정적환경의 소규모 시설이므로 장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Ju et al.(2008)와 Oh(2005) 역시도 소규모형 노인주거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층 증가와 노인층의 경제력 향상으로 노인주거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후에 공동 생활하는 노인시설이나 주거개념을 다룬 연구를 보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Jung, 2002; Song, 2003).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노후에 노인공동주거에 입주를 희망하기도 하였으며(Jung, 2002) 일부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였다(Song, 2003). 이러한 입주의사는 직업,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3; Song, 2003). 전문/기술직과 서비스/생산/단순직 종사자는 노인주거 선호 비율이 높았고, 농어민은 선호 비율이 낮았으며(Song, 2003), 회사원이 농업인 보다 노인주거의 입주의사가 높았다(Cho, 2003). 그리고 중졸보다는 고졸이나 대졸인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의사가 높았다. 월수입 역시 50만원 이하 집단보다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Cho, 2003). 그 외 노후상황도 노인공동주거 입주의사와 관련이 있었다(Cho & Lee, 2005; Oh & Lee, 1993). 노인 혼자 남고 건강 악화시 노인공동주거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 생존하면서 건강 악화시도 입주의사가 높았다.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와 유사한 그룹홈의 장점과 문제점을 제시한 Kim et al.(2001)의 연구에서 노인주거시설의 인식을 파악하였고, 치매노인 그룹홈의 장점은 성별, 연령, 학력,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그룹홈의 재활치료 및 잔존능력 유지 장점을 높게 인식하였고, 51세 이상 연령층에서 치매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대졸이상의 경우 인간적 대우받으면서 생활, 그룹홈이 치매노인주거의 한 대안, 고독감 해소, 재활치료 및 잔존능력 유지, 가족부담 경감과 같은 장점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그리고 집합주택 거주자가 그룹홈이 치매노인주거의 한 대안이라는 장점을 높게 인식하였다. 치매노인 그룹홈의 문제점 역시 성별, 직업, 주택유형,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문제점은 여성이 높게 인식하였다. 가족의 죄의식 문제점은 무직, 회사원, 공무원, 주부가 높게 인식하였고, 단독보다

는 집합주택 거주자가 높았다. 가족 죄의식과 적은 서비스 혜택의 문제점은 주택규모 35평이하 보다 36-45평인 경우 높게 인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지 도구작성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An, 2009; Choi & Paulsson, 2003; Kim, Kim, Kim, & Seo, 2007; Kim, 2003; Kim et al., 2001; Oh, 2008)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 적합성 및 이해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3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5일부터 2010년 6월 30일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설문지의 문맥 및 단어표현을 수정하였다.

최종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노후대비 및 노인주거시설입주의사(노후대비유무 및 준비내용, 연금유무 및 금액, 건강악화 및 치매중풍 시 희망 주거유형,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입주 결정, 입주상황 및 이사여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 태도는 Kim et al.(2001)의 치매노인 그룹홈 연구에서 장점 7항목과 문제점 5항목을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다루었다. 그리고 노인시설이용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홍보 및 정보부족과 공동생활 불편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응답방식은 폐쇄형으로 하였으며, 일부 질문의 기타 응답은 개방형 자유응답을 병행하였다. 설문 내용 중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5로 인정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래 노인공동주거시설에 관한 수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중소도시로 전주시를 선정한 것은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다. 노인주거의 미래 소비자층은 현재 비노인세대와 현재 노인세대 모두 가능한 범주로 해석하여, 40대에서 60대 이후까지의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 거주자 중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명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전주시 2개 행정구에 각각 100명을 할당하였고, 구 단위에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50명씩 임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연령이 40대 이상인지를 묻고 설문지를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나, 그 중 무응답이나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특성을 파악하였다<Table 1>. 여자 응답자가 55.6%로 남자에 비해 많았고, 응답자의 51.9%는 50대 연령층이었으며 46.1%가 고졸학력이었다. 직업은 전문직, 공무원, 회사원이 35.7%, 판매 및 서비스업이 23.8%, 주부 및 무직의 비율이 34.8%이었고, 농축산업 응답자의 비율이 5.7%였다. 응답자의 월소득은 200-400만원(47.6%)에서 많이 분포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Gender	Male	84(44.4)	189 (100.0)
	Female	105(55.6)	
Age	41-50	36(18.8)	191 (100.0)
	51-60	99(51.9)	
	≥ 61	56(29.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4(17.8)	191 (100.0)
	High school	88(46.1)	
	Undergraduate	46(24.1)	
	Over graduate school	23(12.0)	
Occupation	House keeper, no job (retiree), others	63(34.8)	193 (100.0)
	Sale/service industry	46(23.8)	
	Professional/government/ office work	69(35.7)	
	Agriculture/working	11(5.7)	
Monthly income (won)	≤ 1,999,999	70(37.1)	189 (100.0)
	2,000,000-3,999,999	90(47.6)	
	≥ 4,000,000	29(15.3)	

2) 주거특성

응답자가 거주하는 현 주택 유형은 42.8%가 단독주택이며, 57.1%는 아파트로 나타났다<Table 2>.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87.4%, 임대 혹은 친인척 집에 기거하는 기타의 경우가 12.7%로 응답자의 자가 비율이 높게 파악되었다. 이는 <Table 1>에서 50대 이후 안정기의 연령층이 많음으로 인해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현재 주택에 살았던 거주기간은 평균 14년이었으며, 그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 거주자 47.1%, 11-20년 거주자 34.3%, 21년 이상 거주자 19.5%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역시 안정기의 연령층 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이 높음에 따라 현재 집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66.2-99.1 m²(20-30평)이 많았다.

Table 2.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urrent housing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Types of houses	Detached house	81(42.8)	189 (100.0)
	Apartment house	108(57.2)	
Ownership	owned	166(87.4)	190 (100.0)
	rental	24(12.6)	
Length of residence	≤ 10 years	89(47.1)	189 (100.0)
	11-20 years	65(33.3)	
	≥ 21 years	37(19.6)	
Size of house (m ²)	≤ 66.1	25(13.4)	187 (100.0)
	66.2 - 99.1	110(58.8)	
	99.2 - 132.2	27(14.4)	
	≥ 132.3	25(13.4)	

3) 노후 연금 상황

응답자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연금에 대해 파악하였다<Table 3>. 본인 연금수령은 82.1%, 배우자 연금수령은 61.0%로 나타났다. 본인의 월연금 예상액은 100만원 미만이 38.1%, 100-200만원 미만이 30.3%, 200-300만원 미만이 26.5%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월 연금 예상액은 100만원 미만이 50.0%, 100-200만원 미만이 31.1%로 파악되었다.

Table 3. Pension Condition in Respondents' Old Age

Pension Condition		Frequency (%)	Total
One's pension	Receive	156(82.1)	190 (100.0)
	No receive	34(17.9)	
One's monthly pension (won)	≤ 999,999	59(38.1)	155 (100.0)
	1,000,000-1,999,999	47(30.3)	
	2,000,000-2,999,999	41(26.5)	
	3,000,000-3,999,999	6(3.9)	
	4,000,000-5,000,000	2(1.3)	
Spouse's pension	Receive	105(61.0)	172 (100.0)
	No receive	67(39.0)	
Spouse's monthly pension (won)	≤ 999,999	53(50.0)	106 (100.0)
	1,000,000-1,999,999	33(31.1)	
	2,000,000-2,999,999	15(14.2)	
	3,000,000-3,999,999	3(2.8)	
	4,000,000-5,000,000	2(1.9)	

2. 노후 주거준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응답자들에게 노후 준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2%인 147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Table 4>에서와 같이 건강관리는 66.0%가 잘하고 있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준비는 58.0%의 응답자가 '잘함' 혹은 '매우 잘함'이었고,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를 주거에 대한 준비는 55.5%가 잘하고 있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Table 4. Preparation for Respondents' Old Age

Preparation level	Never prepared	Little prepared	Good prepared	Very good prepared
Economy	13 (6.7)	68 (35.8)	100 (51.8)	12 (6.2)
Health/Healthcare	5 (2.6)	60 (31.4)	115 (60.2)	11 (5.8)
Other activities	17 (9.0)	98 (51.9)	61 (32.3)	13 (6.9)
Leisure time	17 (8.9)	99 (51.8)	63 (33.0)	12 (6.3)
Housing for the aged	9 (4.7)	75 (39.5)	88 (46.3)	18 (9.5)
Keeping active social relationship	9 (4.7)	98 (51.6)	76 (40.0)	7 (3.7)

노후 주거에 관한 생각을 새로운 노인주거 유형에 대한 경험과 관심까지 포함하여 파악하였다<Table 5>. 기존의 실버타운, 요양시설, 양로원은 들어보거나 지각한 바가 90%이상으로 높았으나, 관심여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본 연구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들어본 경험은 57.5%였으나, 관심은 49.2%였다. 노인 주거유형 별로 들어본 경험 대비 관심을 파악해 보면, 새로운 개념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가 들어본 경험에 비해 관심이 실버타운, 요양시설, 양로원에 비해 높았다.

Table 5. Experience and Interest in the Housing Types for Respondents' Old Age

Housing types for one's old age	Perceiving experience		Interest	
	Yes	No	Yes	No
Silver-town	184 (95.8)	8 (4.2)	130 (51.8)	61 (31.9)
Elderly skilled nursing facility	186 (96.4)	7 (3.6)	129 (67.5)	62 (32.5)
Nursing home	186 (96.4)	7 (3.6)	99 (51.8)	92 (48.2)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111 (57.5)	82 (42.5)	94 (49.2)	97 (50.8)

응답자에게 일반적 상황에서 노인이 어느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한 결과, 노인성 질병이 생기면 88.6%가 전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픈 경우 노후 주거로써 현재 집보다 전문시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Table 5>에서 요양시설과 같은 기존 노인 시설은 들어는 보았으나 관심이 낮은 점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노인주거 형태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 전문시설은 질병이 있는 노인의 주거시설로 그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치매, 중풍에 걸렸을 때 희망 주거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집을 떠나 노인시설(39.1%)이나 새로운 형태의 노인 공동주거(44.8%)에서 생활하겠다는 경우가 83.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Table 6>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이 아픈 경우 집을 선호하는 비율은 6.7%이나,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픈 경우 집을 선호하는 경우는 16.1%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은 이해되나, 자신의 경우는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인공동주거는 44.8%가 선호하였고, 현재 노인시설은 39.1%가 선호한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파악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6. Wanted Housing Types for Respondents' Old Age with Illness

Conditions wanted housing types		Frequency (%)
The cases of elderly with general illnesses (n=191)	Current home	13(6.7)
	Nursing home	9(4.7)
	Elderly skilled nursing facility	169(88.6)
Respondent or his spouse with dementia /stroke (n=192)	Current home	31(16.1)
	Elderly facility	75(39.1)
	New type of group home	86(44.8)

3.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 주거의 입주의사

1) 입주의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설의 입주의사를 파악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79.2%인 152명이었으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20.8%인 40명으로 나타났다. 입주를 원할 경우 그 비용을 파악한 결과, 매월 평균 67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주 시 의사결정은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69.3%인 133명, 배우자가 결정한다는 경우가 20.8%인 40명, 자녀가 결정한다는 경우가 7.3%인 14명, 기타가 2.6%인 5명이었다. 이는 노후에 노인공동주거 입주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른 지역친화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입주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입주하겠다'가 61.5%인 115명, '가족의 부양여지가 없을 때'가 14.4%인 27명, '가족들의 부양여건이 안될 때'가 23.0%인 4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노인공동주거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고령화, 부부 및 건강 상황에 따라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입주의사를 파악한 결과 <Table 7>와 같이, 노환은 없지만 부부 모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혹은 중풍이나 치매에 걸렸을 때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입주의사와 관련 변인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을 설명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 그리고 연금관련 변인에 따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입주의사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후의 가족상황 및 부부상황에 따라서도 입주의사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7. Preference of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by Their Conditions

Level	Conditions of elderly	Frequency (%)	Total (%)
Much old	Couple is no illness	52(27.7)	80(42.6)
	One of couple is died	28(14.9)	
Illness	Couple is alive, one of them has a dementia or stroke	46(24.5)	91(48.4)
	Couple have a dementia or stoke	23(12.2)	
	One of couple is died, and other has a dementia or stroke	22(11.7)	
Single	Be alone without health and age	17(9.0)	17(9.0)

그 결과 응답자의 주택규모 및 연금액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 주거시설의 입주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부부 건강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8>. 그러나 가족의 부양의지 및 여건 등의 가족상황은 입주의사와 관련이 없었다.

주택규모와 입주의사 차이를 살펴보면, 66.2-99.1 m²(20평 초과-30평 이하) 규모의 집단이 50.0%로 입주의사가 많았고, 40평 초과가 19.8%, 66.2 m²(20평) 이하가 10.8%, 99.2-132.2 m²(30평 초과-40평) 이하가 8.6%였다. 본인 및 배우자의 월연금 예상액은 입주의사와 유의하였다. 본인 연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주의사가 높았고, 배우자 연금액은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인 경우 모두 입주의사가 있었다. 부부상황에 따른 입주의사 차이는 단 순히 혼자가 되었을 때 보다 어떤 상황이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가 38.0%, 아픈 상황이 되었을 때가 36.9%로 입주할 의사를 나타냈다.

Table 8. Intention to Move into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by Variables

Intention to move variables		Yes	No	χ ² value
Size of house (m ²) ¹⁾	≤ 66.1	19(10.2)	6(3.2)	9.249*
	66.2-99.1	93(50.0)	16(8.6)	
	99.2-132.2	16(8.6)	11(5.9)	
	≥ 132.3	19(19.8)	6(3.2)	
One's pension ²⁾	≤ 999,999	34(22.1)	25(16.2)	26.148***
	1,000,000-1,999,999	38(24.7)	8(5.2)	
	≥ 2,000,000	48(31.2)	1(.6)	
Spouse's pension ²⁾	≤ 999,999	31(29.2)	22(20.8)	18.905***
	1,000,000-1,999,999	31(29.2)	2(1.9)	
	≥ 2,000,000	19(17.9)	1(.9)	
Elderly' condition	Much old	71(38.0)	8(4.3)	13.412***
	Illness	69(36.9)	22(18.5)	
	Single	9(4.8)	8(4.3)	

¹⁾Apartment size is a unit dwelling area

²⁾Pension unit is won per month

*P<.05 **P<.01, ***P<.001

4.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1)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태도

지역사회에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가 도입되

는 데 대한 의견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태도를 파악하였다<Table 9>.

Table 9. Consumer's Attitude to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Attitude	Mean (SD)
• Negative attitude	
Group home charge will be hard to supportive family.	3.55(1.02)
It is hard to select the site for group home as to lack of that from community	3.28(0.93)
Family will feel guilty.	3.05(1.75)
It is hard to supply care experts for the elderly.	2.95(1.05)
People think to be less received service than paid fee of group home.	3.18(0.11)
People are too difficult to choose the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because of less information about that.	3.28(0.97)
Group home is inconvenient of communal life.	3.17(0.96)
Negative attitude Mean (SD)	3.21(1.10)
• Positive attitude	
Elderly will be served with humane care from group home environment like home.	2.96(0.93)
Dementia will be delayed by living with a few old peoples in group home for a long time.	3.27(0.97)
Elderly will receive more professional care service in group home than at home.	3.68(0.98)
Elderly loneliness will be relieved in living with old people in group home.	3.71(0.90)
Elderly keep their survival ability in group home because they participate in daily life and rehabilitation in group home.	3.70(0.93)
Support family is free from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den on old parents.	3.74(0.82)
Elderly is relieved with all care.	3.76(0.91)
Positive attitude Mean (SD)	3.55(0.92)

부정적 태도로 응답자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의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지선정의 어려움, 시설 선택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3.55점) '지역사회의 이해가 부족하여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이다'(3.28점),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선택이 어려울 것이다'(3.28점), '이용료에 비해 서비스 혜택이 적을 것이다'(3.18점)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3.17점), '가족들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3.05점)는 다소 그렇다는 부정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2.95점)는 그렇지 않다는 방향으로 인식하였다.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분석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인간적인 대우받으며 생활한다'(2.96점)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보호와 심리적 안정,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고독감 해소, 잔존능력유지, 치매진전 방지는 보통이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노인공동주거시설이 지역친화적이고 소규모의 개념에서 즉, 전문 인력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인식되나 지속적으로 집과 같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은 크게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태도와 관련 변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 노후 연금관련 사항에 따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긍정 · 부정적 태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력, 거주기간, 연금여부 및 월 연금액 변인에 따라 태도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11>. 그러나 학력과 거주기간의 하위집단은 사후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현재 월 소득, 직업 변인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변인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Attitude to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Characteristics	Attitude Mean (SD)	df	F-value/t-value
• Education			
middle school	3.20(0.62) ^a	3	F=2.768*
high school	3.32(0.52) ^a		
undergraduate	3.04(0.70) ^a		
over graduate	3.09(0.55) ^a		
• Length of residence			
≤ 10 rears	3.17(0.62) ^a	2	F=3.589*
11-20 years	3.30(0.53) ^a		
≥ 21 years	3.09(0.65) ^a		
• One's pension			
receive	3.59(0.60)	37.15	t=1.204*
no receive	3.35(1.14)		
• One's pension			
receive	3.24(0.61)	63.75	t=2.211*
no receive	3.04(0.45)		
• Spouse's pension			
receive	3.70(0.49)	88.51	t=2.029*
no receive	3.45(0.93)		
• Spouse's pension			
receive	3.25(0.56)	135.99	t=1.386
no receive	3.12(0.59)		

^aA non-significant subgroup by Duncan's test.

*P<.05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에 따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 · 부정적 측면에 대한 태도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본인(3.59점)과 배우자(3.70점)가 연금을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 태도가 높았다. 앞으로 본인이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3.04점)가 연금을 받는 경우(3.24점)보다 노인공동주거시설의 부정적 태도가 낮았다(t=2.211, df=63.749, P<.05).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부정적 태도(3.12점)가 낮

Table 11. Respondent and Spouse's Pension and Attitude to Community Friendly Group Home for Elderly

Pension condition characteristics	Attitude Mean (SD)	df	F-value
• One's pension (won/m) ≤ 999,999	• Positive 3.61(0.41)	2	2.69
1,000,000-1,999,999	3.62(0.56)		
≥ 2,000,000	3.54(0.80)		
Total	3.59(0.60)		
• One's pension (won/m) ≤ 999,999	• Negative 3.32(0.47) ^b	2	4.365*
1,000,000-1,999,999	3.37(0.67) ^b		
≥ 2,000,000	3.04(0.61) ^a		
Total	3.25(0.61)		
• Spouse's pension (won/m) ≤ 999,999	• Positive 3.66(0.38)	2	.328
1,000,000-1,999,999	3.72(0.46)		
≥ 2,000,000	3.75(0.73)		
Total	3.70(0.49)		
• Spouse's pension (won/m) ≤ 999,999	• Negative 3.32(0.50) ^b	2	5.876**
1,000,000-1,999,999	3.34(0.61) ^b		
≥ 2,000,000	2.87(0.49) ^a		
Total	3.24(0.56)		

^{a,b}A significant subgroup by Duncan's test.

*P<.05, **P<.01

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응답자와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며, 부정적 태도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노후의 연금여부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긍정적 태도 결정과 관련 변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인의 연금여부에서 나아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태도와 연금액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Table 11>, 응답자 본인 연금 및 배우자 연금 모두 부정적인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인 연금 및 배우자 연금 모두 2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다소 낮았다. 2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는 '보통(3.00점)'과 '그렇지 않다(2.00점)'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월 연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약간 높았다.

IV. 논 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입주의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와 달리 교육, 직업이나 소득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주택규모, 건강상태와 연금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Song(2003)과 Cho(2003)는 전문직의 경우 노인주거전용주택 거주를 선호하나, 농업직은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선호하여 현재 고

향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의식 때문에 노인전용주택 거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파악되지 않았다.

주택규모는 일반 서민층에 해당하는 66.2-99.1 m²(20평-30평) 이하 집단이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입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노후 주거시설 대부분이 고소득층 대상의 고급형과 저소득층 대상의 대규모 시설의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Hong & Jee, 2006)로 볼 때, 중산층 혹은 서민층 노인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개념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의사는 본인 자신의 자발적 의지이며 노인공동주거시설의 입주를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노인의 가족상황이 부부 중심이고, 과거와 달리 자녀 등의 부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2010년 인구통계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대로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공동주거의 계획 및 상품개발에서 자식이나 부양가족보다 노인 혹은 미래 노인 당사자를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의 상황 즉,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치매·중풍에 걸렸을 때 입주의사가 높았다. 이는 건강한 상황에서 노인공동주거보다 일반주거에서 생활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혼자 거주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인공동주거에 거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Oh & Lee(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 동거와 상관없이 건강이 악화될 경우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거주 선호가 높은 것은 Cho & Lee(2005)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 학력, 주택유형,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없었다. 이는 Cho & Lee(2005), Kwon & Kim(2004)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Kwon & Kim(2004)의 연구에서는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은 집에서 자식이나 배우자의 간병서비스를 받겠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현재 노인공동주거가 주로 고학력과 고소득층을 목표로 소수 계층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는 노인의 다양한 학력, 소득의 범위에서 모두 노인공동주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산 서민층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유형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인 및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경우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고, 부정적 태도는 낮았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연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낮았다. 연금액과 무관하게 연금이 있는 경우는 노인공동주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 결과는 노후대비 적립금이 많을수록 유료노인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Kim(2002)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를 선택

하는데 있어 연금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200만원의 연금액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노인공동주거를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10월 21일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를 보면 현실은 노인 연금이나 노후에 대한 금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대도시 노인은 노후대비 준비금이 137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그 개념을 실현하려면 일반 서민층 노인을 위하여, 200만원보다 낮은 연금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저가형, 보급형 등의 형태로 접근하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지역 중소도시 중산층의 노후주거에 관한 한 대안으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입주의사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66.2-99.1 m²(20평-30평)이하 거주자, 노후에 아픈 경우, 노후 연금이 있는 경우 입주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거에 대해 비용부담, 시설입지선정 어려움,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선택의 어려움, 비용대비 낮은 서비스혜택, 가족의 죄의식, 공동생활 불편 등의 부정적 태도가 나타났으며, 전문 인력의 돌봄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또한 노인공동주거에서 생활하므로 보호와 심리적 안정, 가족의 부담 경감, 고독감 해소, 잔존능력유지, 치매진전 방지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소규모 공동주거의 긍정적 측면인 가정적 분위기의 인간적 대우는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는 노후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여부 그리고 연금액 200만원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중산 서민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연금을 의미있는 변인으로 고려하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를 계획하는 것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건강상태, 연금여부, 연금액에 따라 저가형, 보급형, 고급형, 건강형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지역이 전주시에 거주자 40대 이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자료가 많지 않아 통계분석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그룹홈의 장점과 단점을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형성으로 채택하여 해석하였으나, 반드시 장점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문제점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도구에 채택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 K.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living environment of the group-homes for the elderly-focusing on Jeonju and Kwangju.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4), 841-855.
- Choi, J., & Paulsson, J. (2003).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candinavian senior cohousing projects*. Seoul: Jipmoondang.
- Cho, N. (2003). A study on awareness and preference of free-charging elder c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Cho, S., & Lee, T. (2005). Prefere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old age of pre-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6(4), 9-16.
- Fogel, B. S.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staying at home. *Generations*, 16, 15-19.
- Jung, D. (2002). A study on demand for the pay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its activation plan: focused on the case of Yeosu coun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Ju, S., Lee, J., & Ko, Y. (2008). Design for senior congregate housing for Korean urban area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0(3), 198-201.
- Hong, H., & Jee, E. (2004). The elderly and social worker's needs for housing services in community care-to develop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community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2), 1-12.
- Kim, D. (2003). A study on Koreans' perception of fee-based group ho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its differences between group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9(3), 65-72.
- Kim, H., & An, O. (2008). Actual conditions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small: scale group-hom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3), 21-29.
- Kim, J., & Jung, Y. (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Living alon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1), 16-26.
- Kim, M., Kim, K., Kim, S., & Seo, Y. (2007). A study on the color planning of the residential space for the aged with paralytic-focused on the users' color responses.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32(3), 101-114.
- Kim, S. (2002). A Study on the need and consciousness of the middleaged generation on future payment housing for the aged-based on middle and elderly ages around Kyungnam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Kim, D., Kwon, O., & Choi, J. (2001). Merits of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recognized by middle and upper class families, and potential obstacles to its introduc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6), 1-14.
- Kwon, O., & Kim, D. (2004). The opinions of middle aged Korean about user-paid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frail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1-14.

16. Lee, H., Lee Y., Park, H., & Lim, C. (2008). Response of the elderly living in detached housing area to congregate elderly housing. *Proceeding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08-111.
17. Oh, C. (2008). A study for developing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focused on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for aging in place- focused on the elderly lived in detached housing, Busa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3), 59-69.
18. Oh, C., & Lee, Y. (1993).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depending on four aging situatio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9(2), 35-44.
19. Sixsmith, J. A. (1986). The meaning of home: An exploratory study of environmental experi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 281-298.
20. Sixsmith, A. J., & Sixsmith, J. A. (1991). Transitions in home experiences in later lif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8, 181-191.
21. Song, S. (2003). A study on the middle-aged people's preparation for old age: focused on Daejeon city and Chung Nam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접수일(2011. 7. 14)

수정일(1차: 2011. 10. 20)

게재확정일자(2011. 10. 31)